

한국 박쥐보호와 대책

손성원
경남대학교

박쥐는 앞발이 날개로 되었다하여 익수목(CHIROPTERA)이라 한다. 포유류로서 공중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유일한 목이다. 그리고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박쥐는 오늘날과 같이 날고 있었으며 밤하늘을 지배 하 하는데 경쟁자가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혈통은 성공적으로 진화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많은 수의 종류가 생겨나게 되고 대부분이 온대지방에 서식하게 되었다. 일찍부터 박쥐는 사람들에게 경이와 흥미를 주어 왔으나 아직도 사람들은 박쥐에 대한 종류·생태·인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 듯하다. 그러기 때문에 박쥐에 관한 관심도 적고 따라서 현재의 우리나라 박쥐에 대한 상황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20년 전만해도 도심의 가로등 근처에서 먹이를 찾아 배회하거나 골목길에서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박쥐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부터 박쥐를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여기에는 박쥐의 수가 급격히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첫째가 서식지 파괴이다. 이것은 모든 동물에게 있어서 멸종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박쥐 중 70%가 자연동굴이나 폐광에서 서식하는 동굴성 박쥐인데 그중 폐광을 이용하는 박쥐가 80%를 차지하는데 과거에 안보관계 또는 폐광에서 폐수관계 등으로 입구를 막거나 생태조사 없이 파괴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박쥐의 서식지가 많이 파괴되었다. 자연동굴의 경우 최근 제주도, 강원도와 충청남북도에 산재해있는 석회동굴들이 개발되면서 이들 박쥐들이 서식지를 잃게 되었고 또 일부 동굴은 보호를 하기위하여 입구를 봉쇄하기 때문에 박쥐가 출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박쥐 중 8 종정도가 주택 천정이나 처마 밑, 기왓장 밑 등에 서식하면서 가옥 주변에서 해충을 잡아먹는 모습을 과거에는 흔히 볼 수 있었던 박쥐들이다. 그러나 주택 개량(단독주택은 슬라브, 아파트)으로 인하여 박쥐들이 서식지를 잃고 급격히 그 수가 감소되었다.

둘째는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파괴이다. 박쥐의 주요 먹이는 모기, 나방, 등의 곤충들인데 농약의 과다 살포로 인하여 이들을 먹은 박쥐에게 이차적인 오염물질의 축적으로 많은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셋째는 민간요법의 약재로 사용하기 위한 무분별한 포획이다. 박쥐가 시력회복, 강장제, 암 치료로서 효과가 있다는 등 근거 없는 민간요법 때문에 많은 수의 박쥐가 무분별하게 포획되고 있다.

박쥐 보호 대책

첫째: 단독주택, 기와지붕 장려하고 기와장 자체에 구멍을 넣어 집박쥐 류가 서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박쥐 집 달아주기를 한다.

셋째: 동굴이나 폐광입구를 봉쇄하더라도 콘크리트로 완전 봉쇄 또는 밀폐하지 말고 철창을 설치하되 박쥐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가로식의 철창을 설치할 것

넷째: 자연 동굴을 개발하더라도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철재 사다리와 안전장치, 조명시설 등 관광의 안전과 편의만을 위한 시설에만 치중해 있으며 동굴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열조명보다 냉조명을 대치한다.

다섯째: 박쥐의 사냥시간에는 동굴관광을 금하는 시간제를 엄격히 한다

여섯째: 모든 박쥐의 포획을 금지시킨다. 특히나 한약재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우리나라의 박쥐목록(남한)

1.관박쥐	(<i>Rhinolopopus ferrumequinum</i>)
2.제주 관박쥐	(<i>Rhinolopopus ferrumequinum queipartis</i>)
3.붉은 박쥐	(<i>Myotis formosus</i>)
4.큰 발 윗수염 박쥐	(<i>Myotis macrodactylus</i>)
5.물 윗수염 박쥐	(<i>Myotis daubentoni</i>)
6.윗수염 박쥐	(<i>Myotis mystacinus</i>)
7.작은 윗수염 박쥐	(<i>Myotis ikonnikovi</i>)
8.긴 꼬리수염 박쥐	(<i>Myotis fracter</i>)
9.흰 배수염 박쥐	(<i>Myotis nattereri</i>)
10.집박쥐	(<i>Pipistrellus abramus</i>)
11.작은 집 박쥐	(<i>Pipistrellus endoi</i>)
12.검은 집 박쥐	(<i>Pipistrellus savii</i>)
13.평남 줄망박쥐	(<i>Eptesicus serotinus pallens</i>)
14.작은 줄망박쥐	(<i>Eptesicus nilsoni</i>)
15.굵은 가락 줄망박쥐	(<i>Eptesicus serotinus</i>)
16.서선 줄망박쥐	(<i>Eptesicus kobayashii</i>)
17.멧 박쥐	(<i>Nyctalus aviator</i>)
18.북방애기박쥐	(<i>Vespertilio nurinus</i>)
19.안주애기박쥐	(<i>Vespertilio superans</i>)
20.토끼박쥐	(<i>Plecotus auritus</i>)
21.긴 날개박쥐	(<i>Miniopterus schreibersii</i>)
22.작은 긴 날개박쥐	(<i>Miniopterus fuscus</i>)
23.관 코 박쥐	(<i>Murina leucogasta</i>)
24.작은 관 코 박쥐	(<i>Murina ussurensis</i>)